

# 鎭川地域의 金庾信史蹟에 대한 再檢討

趙 翊 鉉\*

## 목 차

- I. 머 리 말
- II. 鎭川地域과 관련된 金庾信 諸記錄 檢討
- III. 鎭川地域의 金庾信 史蹟
- IV. 맺 음 말

## I. 머 리 말

7세기 중엽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신라 삼국통일의 배경으로는 정치·군사·외교 등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김유신의 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삼국사기》 김유신 列傳條를 보면 진천지역은 김유신의 탄생지이며, 김유신의 父인 金舒玄이 太守를 지냈던 지역이다. 따라서 진천은 김유신과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즉 진천지역에는 김유신 탄생지, 태실, 그가 몸과 마음을 닦았다는 장수굴, 그의 덕을 기려 세웠다는 길상사, 또한 화랑벌, 병무관, 무술 등의 유적이 현재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유신과 관련된 진천 지역에 산재된 유적은 그 동안 전해지는 이야기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1999년도에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진천지역의 김유신 유적을 조사하여 김유신과 진천지역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sup>1)</sup> 그리하여 진천군 당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의 국가사적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1999년 6월 11일자로 김유신 탄생지 및 胎靈山 胎室이 「국가 사적 제414호」로 지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예연구사

1) 정영호·조익현, 1999, 『鎭川金庾信將軍史蹟 學術調査 報告書』,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고시된 바 있다. 본고는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1998년 11월 12일부터 1999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 「진천 김유신장군사적 학술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Ⅱ. 鎭川地域과 관련된 金庾信 諸記錄 檢討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인 김유신에 관한 기록 중 진천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 김유신 列傳條에 처음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유신에 관한 많은 기록 중 진천과 관련된 것은 김유신의 탄생에 관한 기록 뿐 대부분 그가 성장한 뒤 주로 활동하던 경주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김유신이 출생한 진천에 대한 제 기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장에서는 진천지역과 김유신에 관련된 기록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김유신 제 기록 검토에 앞서 그의 家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신 가문은 본래 금관가야의 왕족으로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金武力으로 대표되는 舊가야왕족(뒤의 유신계)은 하나의 가문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라 정부에 대한 군사적 협조가 불가피하였으며, 그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여야 했다.<sup>2)</sup> 이러한 당시 시대 상황에서 김유신가문은 신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 특히 군사적으로- 이후 진흥왕의 친정세력에 일역을 담당하면서 가문의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무력의 아들인 서현은 가문을 보다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하여 진흥왕 동생인 肅訖宗의 딸(萬明)과 野合함으로써<sup>3)</sup> 당당한 가문으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유신과 진천지역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음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진천에서 그가 출생하였다는 것과 출생 후 胎를 묻었다는 태령산과 이러한 연고로 진천에 김유신 사당인 길상사를 세우고 祭를 올렸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실린 김유신 탄생과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신형식, 1990, 「김유신가문의 성립과 활동」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246.

3) 이 점에 대하여 신형식은 “서현과 만명과의 혼인설화는 아직도 유신계가 뚜렷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근거”로 지적한 바 있다.(앞책 269) 한편으로는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골품제)에서의 서현과 만명의 혼인은 무열계가 지배권력을 장악하기위하여 유신계와 결합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舒玄이 萬弩郡 태수가 되어 (萬明과) 함께 떠나려 하니, 숙흥중이 그제서야 딸이 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 미워해서 판 집에 가두어 사람을 시켜 지켰는데 갑자기 벼락이 문간을 때리어 지키는 사람이 놀라 어지러뜨리자 만명이 들창문으로 빠져나와서 드디어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서현이 庚辰日 밤에 熒惑과 鎮星 두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만명도 신축일 밤에 동자가 鎗甲을 입고 구름을 타고 堂中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얼마 후에 임신을 하여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다. … (만노군은 지금의 진천이다. 처음 유신의 태를 높은 산에 묻었으므로 지금 胎靈山이라 한다)

공(유신)은 나이 15세에 화량이 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으므로, 龍華香徒라고 불렸다. 진평왕 建福 28년(611)에 17세로 고구려·백제·말갈이 침입함을 보고 적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中嶽 석굴에 들어가 목욕 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기를 (중략)」

위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김유신은 진천(만노군)에서 출생하였으며, 태령산에 그의 태를 묻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유신은 진평왕 17년(595)에 父인 서현과 만명부인 사이에서 20개월 만에 만노군(진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출생 설화를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김유신 출생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그의 출생에 대한 神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즉 김유신은 진평왕 17년(595)에 七曜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며 사후에도 現神이 되었거나 또는 顯靈이 되었다고 한다.<sup>4)</sup>

그런데 김유신이 만노군에서 출생한 것은 확실하나 그가 화량이 되기 이전 유·소년기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김유신이 출생 후 진천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을 보면 김유신은 “15세에 화량이 되었으며 17세에 中岳 석굴에서 심신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다. 문제는 중악의 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신라 五岳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sup>5)</sup> 그런데 진천지역에는 김유신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며 心身을 닦았다는 ‘장수굴’에 관

4) 紀異 제1, 김유신조.

5) 이병도는 三岳중의 하나인 骨火(경북 청도 烏禮山)으로(역주 『삼국사기』, 이기백은 신라 5악중 대구 팔공산으로 비정하고 있으며(「신라오악의 성립과 그 의미」), 한편 김상기는 경주 월성 斷石山으로 비정하고(「화랑과 미륵신앙에 대하여」) 있다.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sup>6)</sup> 이 지역에서 전해오는 장수굴에 대한 내용은 『삼국사기』 기록과 大同小異하며, 또한 이 지역에는 유난히 화랑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전해오나 즉, “화랑들(화랑벌)”, “병무관”, “무술”, “군량골” 등의 유적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약의 위치는 진천지역의 ‘장수굴’ 일 가능성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랑은 대개 15~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약 3년의 수련기간 중 전국의 名山大川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한편 단체정신을 함양하였다. 따라서 김유신도 화랑이 되고나서는 진천지역을 떠나 화랑도와 함께 전국의 名山大川을 순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진천지역의 김유신 관련 전설이나 유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의 고증이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객관적·실증적으로 고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는 데는 다양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유적·유물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胎靈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유신의 태를 묻은 높은 산을 지금 태령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며, 『고려사』 지리지 진천조에도 “신라때 김유신의 태를 묻었더니 신으로 화하였다하여 태령산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사당을 설치하고 봄·가을에 나라에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록을 보면 태령산은 김유신 태를 묻은 곳이며 또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 곳으로 숭배되었던 것이다. 신라에 있어서 山神은 天神의 分身이며 化身이라고 믿었으며 나아가 군주·영웅과 결합하여 갔던 것이다.<sup>7)</sup>

한편 태령산 위치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록을 보면 고을 서쪽 15리 떨어진 곳으로, 『대동지지』에는 서쪽 20리 지점으로 비정하고 있다. 현재의 태령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진천읍에서 약 15~20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원위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음으로 김유신의 祠宇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 진천조에 “신라 때부터 사당을 설치하고 춘추로 향을 내려 제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을 보면 김유신 祠宇는 신라시대부터 건립되어

6) 『진천군지』, 1974년, 92~93 참조.

7) 문경현, 1991, 「신라 고유민족신앙 산악숭배」 『중약지』, 23~24 참조.

祭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유신 사후 그에 대한 평가와 추모는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김유신은 무열왕과 함께 二聖으로 추앙되었고<sup>8)</sup> 후대지만 興武大王으로 追尊되었던 것이다.<sup>9)</sup>

그러면 김유신 사후의 건립 연대의 시기는 언제였을까?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김유신 사후의 건립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고 다만 신라시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유신가의 지위가 절대적이었던 때는 문무·신문왕대이며, 성덕왕·혜공왕 때는 그의 후손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립연대는 김유신이 死去한 문무왕 13년(673)에서 유교식 五廟制가 등장하기 시작하던 신문왕 7년(687) 사이에 건립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10)</sup> 왜냐하면 이 시기는 통일의 氣分이 채 가지지 않은 때이므로 김유신에 대한 평가와 추모의 사회적 분위기가 김유신 사후의 건립으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김유신에 대한 추모는 고려시대까지도 면밀히 이어져 왔다가 조선조 건국초기에 이르러 그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 절하되었던 것 같다. 즉 조선 태조 8년(1399)에 이르러서부터는 國行祭에서 격하되어 鎭川縣令의 주관하에 관행제로 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한편 태종 13년(1413) 9월에 내시를 보내어 진천의 태령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살펴보면 시대가 흐르면서 김유신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어 갔으며 또한 이것은 조선 건국에 대한 정당성과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조치로 생각된다.

태종 이후에는 김유신의 대한 평가는 더욱 절하되어 국가에서 예를 지내는 전국의 영험한 곳 중의 한 곳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즉 세종 11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략)… 그 영험의 여부를 분별하지 말고, 영구히 혁파하였거나 제사드리는 장소를 모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행하는 岳, 瀆, 山, 川의 제품의 예를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하게 하고, 제사 뒤에 감사가 본조에 이문하는 것으로 향식을 삼게 하소서. 유후사의 개성대정 …(중략)… 진천의 태령산 …(중략)…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2)</sup>는 기록과 세종 19년 3월에는 “예조에서 여러 도의 巡番別監의 啓本에 의거하여 岳·海·瀆·山川의 壇廟와 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중략)… 충청도 진천현의 태령산 단 위패는 胎靈山之神이라 써라”<sup>13)</sup> 한 기록에서 태

8) 『삼국유사』 권2, 紀異 萬波息笛조.

9)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하), 『삼국유사』 권1, 기이 김유신조.

10) 차용걸·양기석, 1985, 「진천의 도당산성과 길상사」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95.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진천현, 祠廟條.

12) 『세종실록』 권46, 11년 11월조.

13) 『세종실록』 권76, 19년 3월조.

령산 산신에 대한 제사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김유신은 만노군 태수로 부임한 김서현과 만명부인 사이에서 진평왕 17년(595)에 진천에서 출생하였다. 진천에서 출생한 김유신은 진천지역에서 유소년기의 일정기간을 보내면서 心身을 단련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김유신의 태를 묻은 태령산은 신라시대부터 신성시하여 고려시대까지는 국가에서 춘추로 향과 축을 내려 국행제로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격이 낮아져 관행제로 致祭하다가 세종이후 부터는 태령산신에 대한 제로 성격이 바뀌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Ⅲ. 鎭川地域의 金庾信 史蹟

김유신과 관련된 진천 지역의 유적은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자료 등에 간략히 소개되어 오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하나 김유신의 탄생지와 태실이 있으며, 그가 어려서 화랑으로서의 문무를 닦았던 유적지가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술조사는 진천지역의 김유신관련 사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김유신의 탄생지가 진천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1. 金庾信 胎室과 胎靈山城 (사진 1)

진천읍 상계리 바로 뒷산의 최고봉이 태령산(436m)이다. 태령산은 김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으로, 장군이 태어난 곳이 태령산 기슭이며, 그의 태를 묻은 산이다. 태령산은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 하여 태령산으로 불려졌으며 ‘吉祥山’ 또는 ‘藏胎山’, ‘胎封’ 등의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태령산 기슭이며 그의 태를 태령산 정상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김유신의 태실이라고 일컫는 곳은 태령산 정상부에 있는데 원형으로 3단의 자연적으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덮은 형태이다. 또한 태령산의 정상을 따라 돌담을 쌓아 둘러놓았는데 이것은 신성한 구역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곳 주위의 석축의 형태가 태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의 지세를 따랐기보다는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구역임을 나타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半月이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곡령신앙과 관련시킬 수 있다면, 김유신과 관련된 신앙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sup>14)</sup>

현존하는 석축의 높이는 약 1.2m ~ 1.8m이고, 직경은 약 9m의 타원형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태실 중앙에 1986년도에 보수한 직경 3m, 높이 35cm의 원형 석단이 있으며 잔디를 씌워 놓았다. 태실은 1997년도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 6월에 「국가사적 제414호」로 지정고시 되었다.

한편 태령산의 정상부에는 태실을 둘러싼 돌담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돌레가 약 190m 정도인 태령산성이 있다. 태령산성의 축성년도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축성방식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생각된다. 태령산성에 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의 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석축주위 150間 高四尺 稍完全함. 김유신 태봉이라는 전설이 있음”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태령산성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성내 면적 또한 매우 협착하며, 축성수법은 정교하지 못하다. 삼국시대나 고대의 변방 산성지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성벽의 높이는 낮고 자연 활석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축조되었다. 성벽의 바깥쪽에 있는 이중 석벽은 그 상부가 본 성벽의 바닥 높이와 같고 본 성벽으로부터 약 5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성문을 막아서 이 성벽상부를 올라서 본성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듯하다. 산성의 성벽 안쪽으로는 약간 내평된 도랑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축성 당시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곳으로 통행과 운반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성벽 遺構 이외에 건물지 및 우물지나 다른 유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 몇점과 분청사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기와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태령산성은 그 규모로 보아 본격적인 入保守城할 수 있는 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지리·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 소량의 군비물을 보관하고 主城에 공급하거나 諸地域을 관측하여 主鎮에 전달해 주는 중간거점의 성격을 띤 산성으로 생각된다.

위의 사실을 볼 때 태령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되며 김유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령산성은 태장터를 잘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항제를 행하였던 사실 등을 생각할 때 산성으로서의 개념과 함께 태실을 보호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도 행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4) 차용걸·양기석, 앞 논문(주 9), 93~94.

## 2. 金庾信 誕生地 (사진 2)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을 보면 김유신이 만노군(진천)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탄생지의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비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김유신관련 기록과 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탄생지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김유신의 탄생지 위치를 밝히는데 있어 그의 태를 묻은 태실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만노군의 治所로 비정되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노군 치소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현지의 전설, 유적 등을 통하여 김유신의 탄생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태령산 남쪽 기슭의 상계리 계양마을(일명:지랑마을)에는 「담안밭, 장군터, 장수터, 군자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위의 여러 지명 중 특히 「담안골」이라고 불리는 대지가(약 240평) 있는데 이곳이 주목된다. 담안밭이란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로 부임하여 정사를 폈던 치소로 주위에 큰 담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한편 담안골 이외에도 「군자터」라는 곳이 있고, 이곳 지랑마을 곳곳에서 점토로 판축한 지면이 지하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이곳에서 蓮寶井으로 올라가는 곳에 건물의 초석들로 보이는 크고 작은 석재가 20여개 현재 노출되어 있다. 초석들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대 : 80 × 76 × 42, 중 : 55 × 42 × 32, 소 : 39 × 31 × 24 (단위 cm). 이 석재들은 크기가 고르지 않고 배열상태 등이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유신 탄생지 뒤편, 즉 연보정의 서쪽 방향에 완만한 평탄대지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3열 내지 5열로 구축한 3단의 석축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남아 있는 각 석축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1단 : 길이 31, 높이 1~1.2, 2단 : 길이 27, 높이 0.6~1.2, 3단 : 길이 37.5, 높이 1.1 ~ 1.5 (단위 m).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김유신 탄생지 위치는 이곳 부근으로 추정된다.<sup>15)</sup> 앞으로 이곳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하면 이와 관련된 많은 유적·유물이 출토될 것이라 기대를 가져 본다.

현재 이곳에는 진천군에서 1983년도부터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홍무대왕김유신유허비», 「기념비», 강당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sup>16)</sup> 김유신 탄생지

15) 김유신 탄생지에 대하여 대부분 지랑마을 일대로 보고 있으나, 민택식은 도당산성 일대로 보기도 한다 (『진천 대모산성 연구』, 1983, 『사학연구』 36).

16) 진천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

1995,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진천군·종합건축사무소 鉉錫).



인 이 지역은 1988년 9월 「충청북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 6월 「국가사적 제 414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 3. 吉祥祠 (사진 3)

길상사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김유신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사당이다. 앞에서 언급한 史料에 의하면 길상사는 김유신의 藏胎處로 전하는 신성지역인 태령산성에 자리잡고 있어서 신라시대부터 國行祭로 致祭되어 고려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조선초부터는 진천 감사의 主 宰로 奉祭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된 후 철종 2년(1851)에 백곡면 嘉竹洞에 竹溪祠를 중건하여 모시다가 1926년 진천읍 벽암리 적현마을 현 도당산성 안에 길상사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한국전쟁때 사우가 파손되어 중수한 바 있으며, 1976년에 사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김유신 사우의 원위치 比定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천현 사우조를 보면 「金庾信祠 在吉祥祠」이라 하여 길상사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김유신의 탄생지인 길상산(태령산) 아래에 그의 사우가 신라시대부터 창건되었다고 보고, 이곳을 진천읍 상계리 담안밭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7)</sup> 또 하나의 설은 김유신의 탄생지를 길상산 장군봉 아래로 보고 현재의 백곡면 嘉竹里로 비정하고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길상사의 원위치는 입지조건과 관계기록을 검토해 볼 때, 김유신의 장태지인 태령산성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9)</sup> 현재까지는 첫번째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문헌에 보이는 태령산에 관한 기록과 주변일대의 태령산성, 연보정과 만노산성, 그리고 길상사 아래의 계양마을에 전하고 있는 ‘장군터’, ‘군자터’ 와 같은 김유신 관련 유적 및 그 주위에서 발견되는 토기편, 기와편 등을 볼 때 김유신의 사우는 상계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17) 정영호, 1983, 『중원문화권유적 정밀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박물관

18) 안형열, 1968, 『흥무대왕과 진천』, 24~26. 가죽리 비정설은 金海金氏世德史에 의거한 것으로 조상의 사적을 미화, 수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싶다.

19) 차용걸·양기석, 앞책, 92~93.

#### 4. 沙谷里 將帥窟 (사진 4)

이월면 사곡마을 서쪽 사자산(일면 굴암산)의 동쪽 뒷산 중턱에 속칭 장수굴이라 칭하는 동굴이 있고 그 옆의 암벽에 거대한 마애여래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동굴 입구의 좌우 암벽에는 목조가구의 흔적으로 보이는 홈이 몇 곳에 파여져 있어 당초에는 前室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석굴은 속칭 장수굴이라 불리는데 김유신이 청소년 시절 이곳에서 공부하고 심신을 닦았다고 전한다. 장수굴은 거대한 암벽의 하단부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천장이 낮아지고 폭이 좁아진다. 굴 안의 면적은 약 50평으로 비교적 넓은 공간의 불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굴 밖으로 연결된 전실까지의 면적을 합하면 더욱 넓었을 것이다. 장수굴 입구의 길이는 약 9.5m, 안쪽 길이는 7.3m, 깊이는 11.5m, 높이는 3.2m이다. 굴 입구의 윗면에는 목조 가구를 연결하였던 6개의 方形孔이 패여 있다. 현재 굴입구에는 5-6열의 석축이 남아있는데 길이는 9m, 높이는 80cm~105cm이다.

그리고 寮舍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수굴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의 건물지는 약 1,000평에 달하는데 지표에는 특별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으나 기와편과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한편 현지 전설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때 김유신이 고구려·백제·말갈이 신라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적을 평정할 큰 뜻을 품고 이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맹세하기를 (중략) 기도하였더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노인으로부터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이 전설의 내용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관심이 간다. 또한 장수굴 아래 굴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굴옆에는 샘이 있는데 장군이 무예를 닦을 때 이 물을 마셨다고 한다.

#### 5. 花郎關聯 遺蹟

진천군 萬升面 일대에는 화랑과 관련된 유적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김유신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한 고증의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쉽다. 따라서 현재 불리어지고 있는 지명이나 전설 등을 참조하여 김유신의 발자취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화랑들(화랑벌)

만승면 廣惠院里 광혜원 중고등학교의 서쪽지역은 옛부터 화랑들 또는 화랑벌이라고 불리어 왔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김유신 등 화랑도가 심신을 연마하며 무술을 닦던 곳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택지 개발로 인하여 그 터를 분간하기 어려우나 개발 이전에 이 터에서 주축석으로 이용했던 석재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었고 기와편도 출토되었다고 한다.

한편 1959년도에 광혜원리 93번지 담배창고 앞에서 '花郎候' 라고 음각된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 2) 兵武館

광혜원면 鳩岩마을은 병무관 또는 병목안이라고도 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병무관이란 신라시대 화랑들의 병기고, 즉 병무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며 화랑의 연무대로도 사용했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도 이 일대에서는 기와 조각 등이 수습되고 있다.

## 3) 武述

병무관에서 서쪽으로 약 2km 지점에 무술(무술리)이라는 마을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이곳을 중심으로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고 한다.

## 4) 기타 화랑관련 지명

이 밖에 광혜원 일대의 화랑관련 지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무관에서 약 1.5km 서쪽에 신라시대 화랑들이 활을 쏘고 훈련한 곳인 '쓸 고개(射場골)'가 있으며, 화랑들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實院里의 大實과 小實로 갈라지는 곳에 화랑들의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던 곳인 군량골이 있다.

또한 화랑들이 식수로 사용했다는 '관창샘', 화랑들이 말을 타고 훈련하였던 '말탄터', 신라시대 비둘기를 통신 전령으로 이용하기 위한 비둘기를 훈련시킨 '비둘목', 옛날에 대나무가 많아 이를 이용하여 활과 화살통을 많이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땃골' 등이 있다.

# IV. 맺 음 말

충청북도 진천지역은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인 김유신의 탄생지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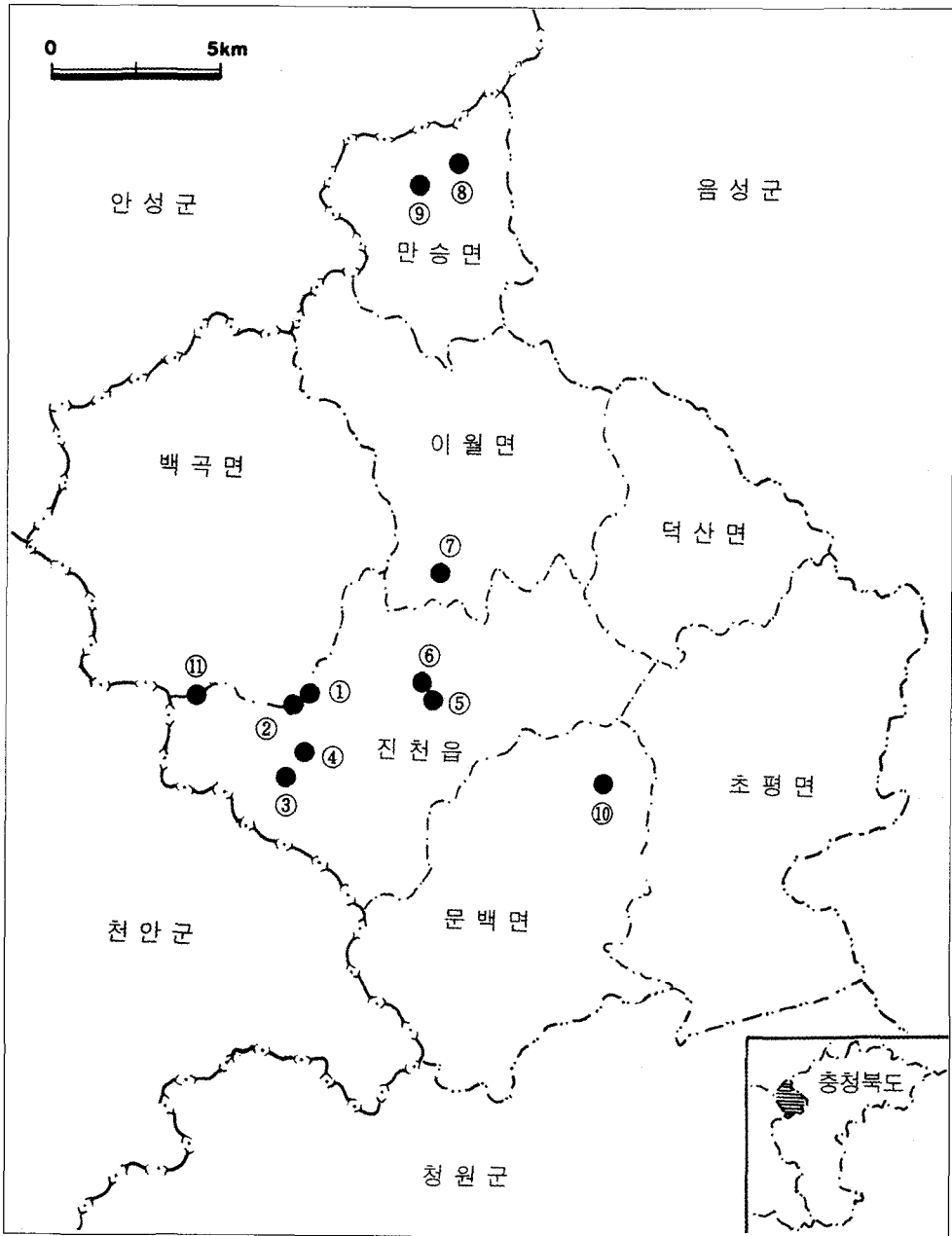
현재 진천지역에는 김유신과 관련된 사적이 많이 남아 있다. 즉 김유신의 탄생지, 연보정, 태실과 태령산성, 길상사와 도당산성, 사곡리 장수굴, 만승면 화랑관련 지명 등의 사적이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제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이 태어난 곳이 태령산 기슭이며 그의 태를 태령산에 묻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과 현지조사에서 얻어진 유물·유적, 현지의 전설 등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유신의 탄생지로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9번지 일대가 주목된다. 진천지역에 김유신 탄생지와 태령산을 중심으로 김유신 관련 많은 사적이 분포되어 있음은 고고학적으로 진천지역이 김유신의 탄생지임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천지역에 남아 있는 김유신 관련 유적이나 관계전설은 아직도 학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문헌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바 고고학적 자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문헌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아울러 고고학적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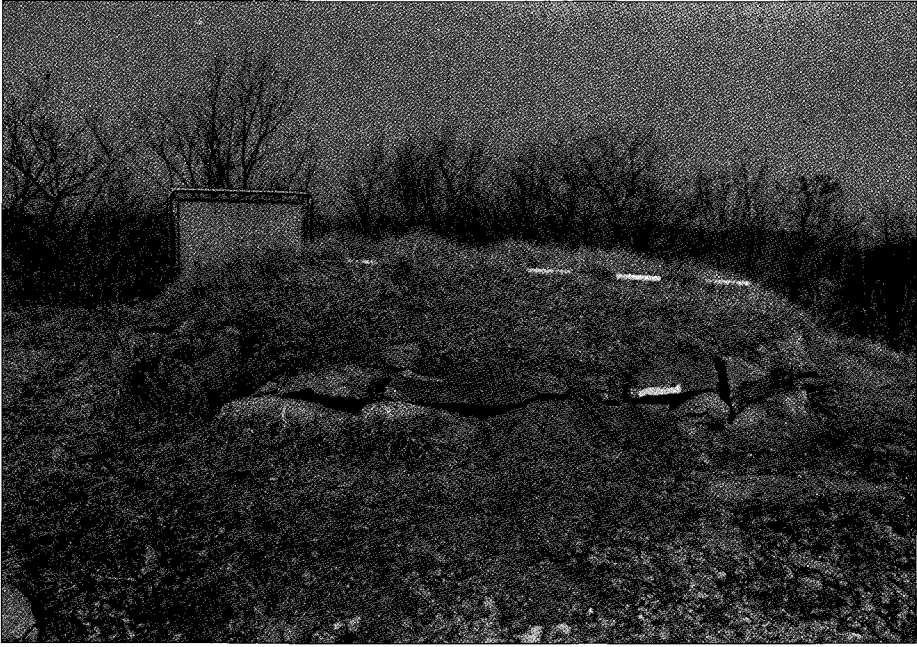
둘째,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상호연관성을 살피는 연구가 현재 미흡하다. 즉 각각의 유적·유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내지는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시도는 아직 부족하다 하겠다.

나아가 한 지역의 역사는 공간적으로는 자연적·인문적 환경과 시간적으로는 그 지역의 다양한 경험의 축적되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한 지역의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것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조사활동을 기대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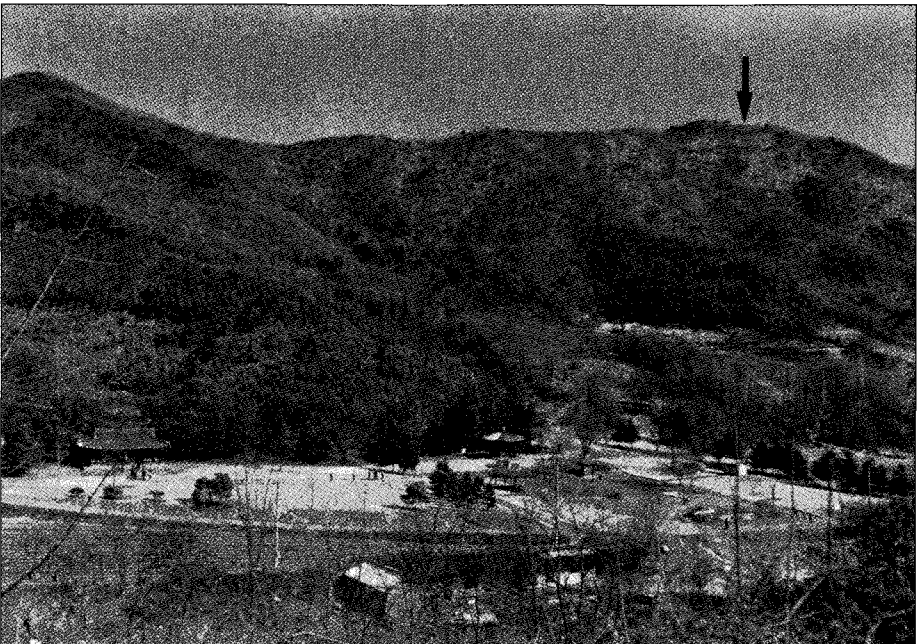


지도. 진천 김유신 사적 분포도

- |            |                  |        |
|------------|------------------|--------|
| ① 김유신장군 태실 | ⑤ 길상사            | ⑨ 병무관  |
| ② 태령산성     | ⑥ 도당산성           | ⑩ 농다리  |
| ③ 김유신장군탄생지 | ⑦ 장수굴과 사곡리마애여래입상 | ⑪ 만뢰산성 |
| ④ 연보정      | ⑧ 화랑벌            |        |



〈사진 1〉 김유신 태실 근경



〈사진 2〉 김유신 탄생지(↓부분이 태실임)



〈사진 3〉 현재의 길상사 전경



〈사진 4〉 사곡리 장수굴